



전립선은행 소식지

Prostate Bank Newsletter



C/O/N/T/E/N/T/S

아시아 국제공동연구 1

- 아시아 최초의 전립선은행의 역할 강의

국내외 교류 2

- 국내 주요 병원과의 MOU 체결

- 국내 관련 학회와의 MOU 체결

- 국외 미국 피츠버그대학 병리학과와

일본 오카야마 비뇨기과와의 MOU 체결

전립선은행 비전과 목표 3

- 전립선 은행의 비전

- 전립선 은행의 목표

Prostate Bank News 4

Board 4

- 전립선은행 분양 서비스 안내

- 전립선은행 소식지 안내

발행처	전립선은행
사무국	130-040,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05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 5010호
전화, 팩스	02-590-2597
E-mail	prostatebank@gmail.com
Home page	http://www.prostatebank.or.kr

“전립선은행(Korea Prostate Bank,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과 오카야마대학(Okayama University)간의 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체결”

가톨릭대학교 비뇨기과 이지열 교수는 2008년 6월 8일 일본 오카야마에서 개최된 Asian Study Okayama 2008에 참석하여 한국, 일본, 중국 및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인의 전립선암의 유전적 배경 (genetic background)에 대한 공동연구를 하기로 하고, 전립선은행 (Korea Prostate Bank,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과 오카야마 대학 (Okayama University)간에 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시아 전립선암 공동연구는 일본에서는 오카야마 대학 비뇨기과 주임교수이며, ICONT (Innovation Center of Okayama Nanobio-targeted Therapy) 센터장인 Hiromi Kumon 교수와 Yasutomo Nasu 교수가 참여하고, 중국에서는 북경대학 비뇨기과 주임교수이며 현 중국비뇨기과학회 이사장인 Yan Qun Na 교수와 Beijing Cancer Hospital 비뇨기과 과장이며 중국비뇨기과학회 차기 이사장인 Ming Li 교수가 참여하며, 싱가포르에서는 Singapore General Hospital 비뇨기과 주임교수인 Christopher Cheng 교수,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비뇨기과학회 이사장이신 황태곤 교수와 전립선은행장인 이지열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전립선암 공동연구로 아시아 네트워크를 만들어 향후 전립선암의 유전자 치료 등 기초 및 임상연구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지열 교수는 Asian Study 2008에서 아시아 최초의 전립선은행의 역할에 대하여 강의하였고, 향후 아시아 각국의 전립선은행 설립을 도와주는 거점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3년간 steering committee를 만들자고 건의하여 매년 2~3회 만나고 공동연구의 성과를 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지열 교수는 2007년 10월 미국 피츠버그대학 전립선암은행을 방문하여 benchmarking 하였으며, Rajiv Dhir 교수와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 전립선암 공동연구 참여 아시아 4개국 전립선암의 유전배경 3년간 연구



▲ 전립선은행 및 오카야마 대학 협약서
(사진 오른쪽이 이지열 교수)

가톨릭대학교 전립선은행(은행장 성가 병원 이지열 교수는 지난 8일 일본 오카야마에서 개최된 국제회의 'Asian Study Okayama 2008'에서 한국-일본-중국-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인의 전립선암의 유전적 배경 (genetic background)에 대한 공동연구를 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오카야마 대학(Okayama University)과 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공동연구는 향후 아시아 네트워크를 구성해 전립선암의 유전자 치료 등 기초 및 임상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취지이

다. 아시아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공동연구에는 일본에서는 오카야마 대학 비뇨기과 주임교수이며 ICONT(Innovation Center of Okayama Nanobio-targeted Therapy) 센터장인 Hiromi Kumon 교수와 Yasutomo Nasu 교수가 참여하고, 중국에서는 북경대학 비뇨기과 주임교수이며 현 중국비뇨기과학회 이사장인 Yan Qun Na 교수와 Beijing Cancer Hospital 비뇨기과 과장이며 중국비뇨기과학회 차기 이사장인 Ming Li 교수가 참여하며, 싱가포르에서는 Singapore General Hospital 비뇨기과 주임교수인 Christopher Cheng 교수,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비뇨기과학회 이사장이신 황태곤 교수와 전립선은행장인 이지열 교수가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 아시아 최초의 전립선은행의 역할을 강의한 이지열 교수는 향후 아시아 각국의 전립선은행 설립을 도와주는 거점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로 약속했으며, 향후 3년간 지속되는 아시아 전립선암 공동연구를 위해 운영 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만들자고 건의, 매년 2-3회의 만남을 통해 공동연구의 성과를 내기로 합의했다.

(관련기사 2면)



❖ 국내외 교류

전립선은행 2008년 6월 현재 국외 2개 기관 즉 미국 피츠버그대학 전립선암은행과 일본 오카야마 대학 (Okayama University)간에 공동연구를 위한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강남성모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등 대학병원들과 대한전립선학회, 비뇨기계 기초의학연구회, 대한요로생식감염학회 등의 학회들, 그리고 램지노믹스 회사가 전립선은행과 공동연구를 위한 협약 체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립선은행과 전립선연구의 특성상 각 지방과 1개 이상의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에 정진할 계획이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 피츠버그대학 전립선암은행



일본 오카야마 대학

❖ 언론 매체

Medipana 뉴스지의 보도 (1페이지에서 이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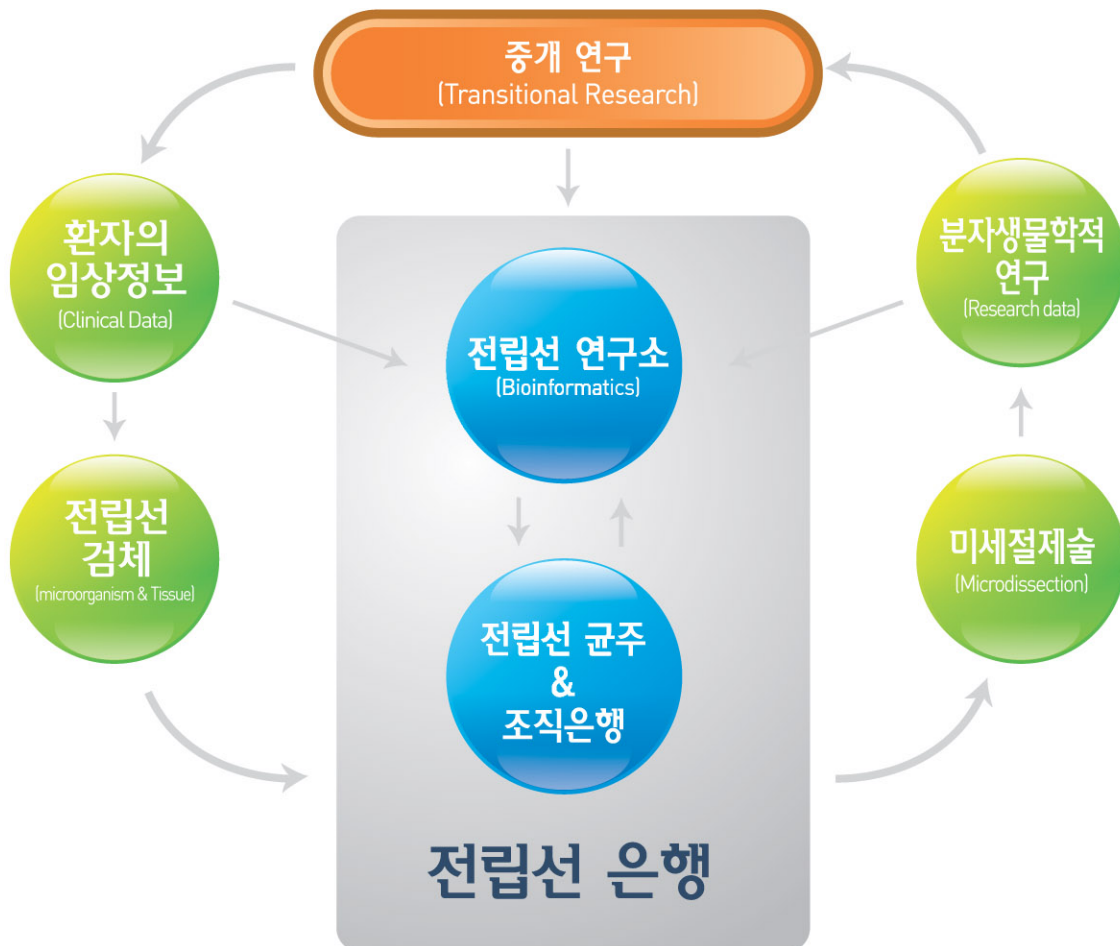
이번 가톨릭대학교와 일본 오카야마대학교의 공동연구는 아시아 4개국 이 함께 '아시아인의 전립선암의 유전적 배경'에 대해 공동연구 하는 것으로 전립선암 치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향후 이들 국가에 '전립선은행'을 설립해 아시아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전립선암의 유전자 치료 등 기초와 임상연구 진행을 함께 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전립선 치료를 위한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전립선 질환에 대한 연구의 가장 큰 유전자(환자)데이터가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6년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국가지정연구소 재은행으로 지정된 '전립선은행'은 정부의 지원과 삼성서울, 서울아산, 세브란스병원 등의 대형병원의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데이터 공유를 통해 전립선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충남대, 전남대, 충북대 등의 각 지역 우수대학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전립선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 은행은 전립선에서 발생하는 질환인 전립선염, 전립선비대증과 전립선암에 대해 환자로부터 검체(조직, 혈액, 혈청, 소변과 균주)와 이로부터 분리한 DNA, RNA, protein을 보관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곳으로 전립선 검체와 검체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 분양해 질병에 관한 연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지원을 하는 곳이다.

이 교수는 "향후 3년간 진행될 전립선 암 공동연구를 위해 매년 2~3회의 만남을 통해 공동연구의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번 연구를 통해 이들 국가와 전립선암의 치료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를 구성해 '전립선암의 유전자 치료, 기초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립선은행 비전과 목표



● 전립선 은행의 비전

- 1) 전립선 균주 및 조직은행
 - 전립선 연구소와 상호 관계 속에서 전립선 검체 조직, 혈액, 혈청, 소변 및 균주 검체에서 추출된 DNA, RNA, protein을 보관하고 자원화하는 일을 목적으로 합니다.
- 2) 전립선 연구소(Bioinformatics) 개설
 - 전립선 질환 연구(전립선염, 전립선비대증 및 전립선암)와 동시에 분자생물학적 연구 및 환자의 임상정보를 바탕으로 임상과 기초 의학의 중개 연구(Transition Research) 역할을 합니다.
- 3) Web based one stop 분양서비스를 합니다.

● 전립선 은행의 최종목표

- 1) 아시아 최고의 전립선 거점은행으로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 2) 전립선 관련 연구분야에 지속적이고 신속한 연구소재 제공합니다.

Prostate Bank News

● 가톨릭의대 이지열 교수, 아시아 비뇨기과의사 대상 강연

2월 15~16일 중국 곤명 Kuming에서 개최된 과민성방광 심포지엄인 제2차 Asian NEXUS(Network of Excellence in Urological Science)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지열 은행장은 한국 남성의 과민성방광 치료에 대한 최신지견인 'The Korean Experience of Treating Men with LUTS'를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 국내 바이오사 줄기세포로 요실금 동물임상

전립선은행 이지열 은행장은 3월 5일 알앤엘바이오 국내 바이오기업이 사람의 지방줄기세포와 태반 줄기세포를 요실금 모델 동물을 대상으로 투여한 결과 치료효과를 거둬 관심을 모았습니다. 회사 측은 향후 3개월의 추가 시험을 실시해 동물 임상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 대한비뇨기과학회 2008년도 비뇨기계기초의학연구회 제3차 학술대회



2008년 4월 12일 강남성모병원에서 개최된 대한비뇨기과학회, 2008년도 비뇨기계기초의학연구회 제3차 학술대회에서 이지열 은행장이 "Translational experimental therapeutics: The translation of laboratory-based discovery into disease-related therapy"에 대한 강연과 전립선은행



협력병원인 미국 피츠버그 Rajiv Dhir 교수가 "Prostate Research using Prostate Bank" 강연을 하였습니다.

● 국가연구소재중앙센터개소식안내

중앙센터의 개소식이 5월 2일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개소식과 함께 오후에 소재은행의 은행장님 워크숍과 은행원의 워크숍도 함께 열렸습니다.

● 전립선은행 현장점검

5월 27일 전립선은행이 과학재단에서 현장점검을 받았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운영관리, 예산관리, 시설관리로 나누어 내년 초에 이루어지는 종합 평가결과에 포함됩니다.

● 제1회 의료용 생체지지 섬유 구조체의 제조 기술 및 제품 개발 워크숍

6월 28일 29일 양일간 제주도 스페니쉬힐에서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 제3차 국가지정 전립선은행 심포지엄

7월 25일 6시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 1003호에서 전립선은행 3차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 1) 제목: 전립선염 균주 은행
- 2) 강사: 전립선염의 진단 및 문제점 - 이승주 교수
전립선염의 치료 - 하유신 교수
우리나라 전립선염의 현황 - 김현우 교수
동결건조방법 - 환경유전자은행 이상섭 교수

| Board |

✔ 전립선 은행 분양 서비스 안내

전립선 균주, 조직 및 혈액 분양 신청

1. 전립선 연구와 개발 등을 위해 전립선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균주, 조직 및 혈액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 2007년에는 전립선은행 내의 전립선 균주를 분양하였습니다.
 - 2008년 3월부터는 전립선 조직 검체에 대한 분양을 시작 하였습니다.
2. 분양 신청 방법
 -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신청하시고 필요 서류 등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 우편, FAX, KPB 홈페이지로 신청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분양 접수 및 문의

- 주소 : 130-040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05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 5010호
- 전화, 팩스 : 02-590-2597
- E-mail : prostatebank@gmail.com
- Homepage : http://www.prostatebank.or.kr

✔ 전립선은행 소식지 안내

전립선은행 소식지는 1년에 4번 발행하며 전립선질환을 연구 하시는 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소식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FAX, E-mail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